

28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웃자락을 나누끼고 호울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
리라.

- 유지환, 「생명의 서(書)」 -

(나) 머리는 이미 오래 전에 잘렸다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봄바람 불어도 움직일 수 없고
토르소*처럼 ㉢ 몸통만 남아
숨막히게 답답하다
라일락 향기 짙어지면 지금도
그날의 기억 되살아나는데
늘어진 가지들 모두 잘린 채
줄지어 늘어서 있는
길가의 수양버들
새 잎조차 피어날 수 없어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어
㉣ 몸통으로 잎이 돋는다

- 김광규, 「4월의 가로수」 -

* 토르소: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으로 된 조각상.

(다) 아프다, 나는 쉬이 꽃망울을 터트렸다
한때는 자랑이었다
풀밭에서 만난 봉오리들 불러모아
피어봐, 한번 피어봐 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상처도 없이 노래를 불렀으니

이제 내가 부른 꽃들
모두 졌다

아프다, 다시는 쉬이 꽃이 되지 않으려나
퐁퐁 얼어붙은
내 몸의 수만 개 이파리들

누가 와서 불러도
죽다가도 살아나는 내 안의 생기가
무섭게 흔들어도
다시는 쉬이 꽃이 되지 않으려나.

- 오봉옥, 「꽃」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삶의 자세와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④ (가)~(다)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동경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② ㉡은 '호울로 서면' 만나게 되는 '본연한 자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③ ㉢은 1행부터 3행까지의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껴 '토르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
- ④ ㉣은 '새 잎조차 피어날 수' 없고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잎을 피워내고 있다.
- ⑤ ㉠이 '열렬한 고독'을 거쳐 ㉡으로 변화하듯, ㉢은 '늘어진 가지'를 거쳐 ㉣으로 변화하고 있다.

3. (나)와 (다)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4.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쉬이 꽃망울을 터트렸다'는 인식은 화자에게 '아프다'라는 정서를 유발한다.
- ② '노래를 불렀으니'는 '봉오리들'을 피우기 위한 화자의 행위이다.
- ③ '이제 내가 부른 꽃들 / 모두 졌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다.
- ④ '내 몸의 수만 개 이파리들'은 과거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다.
- ⑤ '무섭게 흔들어도'는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몹시 절실한 순간이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그곳에 앉아 바라볼 수 있는 바깥 풍경에, 결코,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손님이 벗어 놓은 구두를 가지런히 놓고, 슬리퍼를 권하고, 담배 사러, 돈 바꾸러 잔심부름을 다니고 그러는 이외에 그가 이발소에서 하는 일이란, 손님의 머리를 잡아 주는 그것뿐으로, 이렇게 툴툴이 밖이라도 내어다보지 않고는 이러한 곳에서, 누가 그저 밥만 얻어먹고 있겠느냐고, 그것은 좀 극단의 말이나, 하여튼, 그는 그렇게도 바깥 구경이 좋았다.

그렇게 매일 내어다보고 있는 중에, 양쪽 천변을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 가지가 무어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제판에는 너무나 신기하여, 그래서, 그는, 곧잘, 이발하러 온 손님이 등 뒤에서,

“인석, 뭘 이렇게 정신없이 보구 있니?”

하고라도 물을 양이면,

“저것 좀 내다보세요.”

바로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이 창밖을 손으로 가리키고,

“저어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인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어데, 누구.”

손님의 넥타이 매던 손을 멈추고 그가 가리키는 곳을 내다 보느라하면, 탄은 낡은 노동복에 때 묻은 나이트캡을 쓰고, 아무렇게나 막되어 먹은 놈이 덜렁덜렁 빨래터 사다리를 올라온다.

“저거, 땅꾼 아니냐?”

“땅꾼요?”

“거지대장 말야.”

“저건 둘째 대장예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겠어요?”

“인석,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그러면 소년은 가장 자랑스러이,

“인제 보세요. 저어 대리”께 가게루 갈 테뇨.”

“㉠ 어디..... 참, 탄은 가게루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담뱃 사러 갔을까?”

“아무것도 안 사구 그냥 나올 테니 보세요. 자아, 다시 돌려서서 이쪽으로 오요?”

“그래 인제 저놈이 어딜 가누?”

“인젠, 개천가 선술집으루 들어갈 테니 보세요.”

“어디..... 참, 탄은 술집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두 저놈이 가게서 뭐든지 샀는지, 그냥 거긴 갔다 올 까닭이 있나?”

“㉡ 왜 들어가는지 아르켜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대리 밑으루 들어가서, 게서, 거지들한테 돈을 십 전이구 이십 전이구, 얻어 갖거든요. 그래 그걸루 술두 사 먹구, 밥두 사 먹구 허는데, 그게 거지들이 동냥해 들인 거니, 이십 전이구, 삼십 전이구 간에, 모두 동전 한 푼짜릴 꺼 아녜요? 근데 저 사람이 ㉢ 동전 가지군 절대 술집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은제든지 꼭 가게루 가서, 그걸 모두 십 전짜리루 바꿔 달래서.....”

하고 한참 재미가 나서 이야기를 하느라하면, 그런 때마다 무슨 일이든 생기는 것도 공교로워,

㉣ “인마. 잔소리 그만허구, 어서 돈 좀 바꾸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이발사 김 서방이, 바로 쟈 척하고 소리치는 것도 은근히 약이 오르는 노릇이다.....

소년은, 아까 한나절 아이를 보아 주던, 신전집 주인의 장구

대가리 처남이, 이번에는, 또 언제나 한가지로 물지계를 지고 천변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어는, 밤낮, 생질의 아이나 봐 주구, 물이나 길어 주구, ㉤ 그러다가 죽으려나?’

어린 마음에도, 어쩐지, 그러한 그가 딱하게 생각되었으나, 그것도 잠시 동안의 일로, 문득 창 앞을 느린 걸음으로 점잖게 지나는 중년의 신사를 보자, 어린이의 입가에는, 제풀에, 명량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 신사는, 우선, 몸이 뚱뚱하고, 더욱이 배가 앞으로 쭉 나왔다. 그것에 정비례하여, 그의 얼굴이 크고 또 살찐 것은 물론이지만, 그 큰 얼굴에 또 그대로 정비례하여, 눈, 코, 귀, 입이 모두 크다. 그 중에도 장관인 것은, 그의 코로, 그 이를테면 벌렁코 종류에 속하는 크고 둥근 콧잔등이, 근래는 단연히 금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에 그가 애주하였을 때의 그 기념으로, 새빨강게 주독이 든 것이, 여간 탐스럽지 않다. 그러한 얼굴에다, 그 위에, 그가 애용하는 중산모를 얹고, 실내화 신은 발을 천천히 옮겨 걸어갈 때,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은근한 기쁨을 갖더라도, 그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더

[A] 구나 그가 남의 앞에서 즐겨 꺼내 보는 그 시계는 참말 금시계지만, 역시 참말 심팔금인 것같이 남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듯싶은 그 시계줄이, 사실은 오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발소 안에서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는 소년은, 그의 태도와 걸음걸이가 점잖으면 점잖을수록, 더욱이 속으로 우스웠다.

그 웃음에는, 그러나, 물론 약의 같은 것이 풀어 있지는 않았다. 만약 있다면, 오히려 호의일 것이다. 자기의 매부가 부회의원인 것을 다시없는 명예로 알고, 때로, 육십 노모까지를 끼워서 온 가족을 인술하고 백화점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는 취미를 가진 그를, 사실 이 소년이 미워한 다른 비웃는다든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 대리 : 다리.

- 박태원, 「천변풍경」 -

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을 교차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인물 간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내어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인물의 공간 이동을 통해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더해 주고 있다.
- 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강조하고 있다.

6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천변의 인물들은 소년에게 호기심의 대상이다.
- ② 중년 신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시하고 있다.
- ③ 소년은 이발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 ④ 천변의 인물들은 둘째 대장 거지에 대해 연민을 보이고 있다.
- ⑤ 중년 신사는 그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소년의 예상이 맞는 것을 신기해 하고 있다.
- ② ㉡ :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
- ③ ㉢ : 소년은 둘째 대장 거지가 부끄러워한다고 여기고 있다.
- ④ ㉣ : 상대의 행위를 무시하고 있다.
- ⑤ ㉤ : 대상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8.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 기>

ㄱ. 문장을 길게 늘어 씌으로써 인물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ㄴ. 섬세한 배경 묘사를 통해 작품의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ㄷ. 삽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해당 부분에 주목하여 읽게 한다.

ㄹ. 다양한 문장 종결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과 주변 사물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월 삼짇날, 청명절 등에 부녀자들은 인근 산천을 찾아가 화전을 만들어 먹으면서 가사를 낭송하며 하루를 즐겼다. 화전가는 이때 지은 규방 가사로서 현장에서 창작되거나 집에 돌아간 후 지어지기도 했다. 때로는 남편이 지어 준 글을 가져 오거나 미리 지어 오기도 했다.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면서 문답 형식의 화전가를 낳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흥취를 공유하거나 가문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화전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인다. 봄의 찬미, 화전놀이 공론과 택일, 통문, 허락, 경비 추렴, 화전놀이 출발, 도착 후 화전놀이, 재회의 기약, 이별, 귀가와 발문이 이어진다. 그중 화전놀이의 내용으로는 ‘내척’ 같은 교양물을 읊는 풍월 놀이, 부녀자의 신세 한탄, 놀이에 대한 감흥 등을 들 수 있다. [A]는 화전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춘삼월 좋은 가절 군생지물 자랑하다
 생기로운 꽃다운 풀 푸릇푸릇 싹이 돋고
 향기로운 두견화는 불긋불긋 송이 핀다
 버들막에 ㉠ 피꼬리는 벼을 찾아 날아들고
 수풀 사이 노래하고 꽃나비 춤을 춘다
 때는 좋다 벗님네야 내 말씀 들어 보소
 이와 같이 좋은 시절 엮지 그리 허송하라
 (중략)

일년일차 화전놀음 여자놀음 이뿐일세
 하루이틀 물림 받고 하로 물림 여호리라
 무정풍우 밤사이에 앓가울사 꽃이 지면
 꽃을 찾아 화전놀음 무슨 흥미 잇으리오
 갑자을축 택일은 많으나 천기를 살펴보니
 일구풍화 오늘같이 대동대길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화전가에는 화전놀이를 통한 상춘(賞春)의 흥취와 함께, 고달픈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한스러운 심정과 현실의 굴레에서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부녀자들의 염원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화전가 중에서 독특한 구성으로 주목을 받는 「텐동어미 화전가」는 ‘외부 이야기’ 안에 텐동어미의 일생담이 담긴 ‘내부 이야기’가 포함된 액자식 구성을 띤다. ‘외부 이야기’는 대체로 화전가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내부 이야기’는 상부(喪夫)와 개가(改嫁)를 반복하는 비극적인 삶을 산 텐동어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

어떤 부인은 글 용해서 **내척 편을** 외워내고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칠월 편을** 노래하고
 어떤 부인은 목성 좋아 화전가를 잘도 보네
 그중에도 텐동어미 벗어나게도 잘도 놀아
 춤도 추며 노래도 하니 웃음소리 낭자한데
 그중에도 **청춘과녀** 눈물 콧물 피죄죄하다
한 부인이 이른 말이 좋은 풍경 좋은 놀음에
 무슨 근심 대단해서 낙루한심 웬일이오
 나건으로 눈물 닦고 내 사정을 들어보소

열네 살에 시집을 때 청실홍실 늘인 인정
 원불상리 맹세하고 백 년이나 살았더니
 겨우 삼 년 동거하고 **영결중천 이별**하니
 [B] 입은 겨우 십육이요 나는 겨우 십칠이라
 선풍도골 우리 낭군 어느 때나 다시 불꼬
 방정맞고 가련하지 애고애고 답답하다

십육 세 요사 임뿐이요 십칠 세 과부 나뿐이지
 삼사 년을 지냈으나 마음에는 안 죽었네
 이웃 사람 지나가도 **서방님**이 오시는가
 새소리만 귀에 오면 서방님이 말하는가
 그 얼굴이 눈에 삼삼 그 말소리 귀에 쟁쟁
 탐탐하면 **우리 낭군** 자나깨나 잊을쏜가
 [C] 잠이나 잘 오면 꿈에나 만나지만
 잠이 와야 꿈을 꾸지 꿈을 꺾야 입을 보지
 간밤에야 꿈을 꾸니 정든 입을 잠간 만나
 만단정담을 다하겠더니 일장설화를 채 못하여
 ㉠ **피꼬리** 소리 깨달으니 입은 정녕 간 곳 없고
 촛불만 경경불멸하니 아까 울던 저놈의 새가
 자네는 듣고 좋다 하되 나와 백 년 원수로세
 어디 가서 못 울어서 구태여 내 단잠 깨우시고

정정한 마음 둘 데 없어 이리저리 재던 차에
화전놀음이 좋다 하기에 **심회를 조금 풀까** 하고
 자네를 따라 참여하니 축처감창뿐이로세
 보나니 족족 눈물ियो 들나니 족족 한심일세
 [D]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 꽃핀 걸 보아도 비창한테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나
 가자 하니 말 아니요 아니 가고는 어찌할꼬

텐둥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제발 적선 가지 말게
 팔자 한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 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도 내 팔자요
 팔자가 좋을 양이면 십칠 세에 청상될까
신명 도망* 못할지라 이내 말을 들어 보소
 나도 본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일러니
 우리 부모 사랑하사 어리장고리장 키우다가
 열여섯에 시집가니 예친 읍내 그중 큰 집에
 치행 차려 들어가니 장 이방의 집일러라
 서방님을 잠간 보니 준수비범 풍후하고
 시부모님께 현알하니 사랑한 맘 거룩하데
 그 이듬해 처가 오니 때차침 단오러라
 삼백 장 높은 가지 추천을 뒤탈가서
 추천 줄이 떨어지며 공중에 메박으니
 그만에 박살이라 이런 일이 또 있는가

- 작자 미상, 「텐둥어미 화전가」 -

* 신명 도망 : 운명이나 팔자로부터 도망을 침.

9. (가)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봄을 맞이한 심회를 읊음. ㉠ a
- 화전놀이를 행할 날을 택함. ㉠ b
- 화전놀이를 위한 경비를 추렴함. ㉠ c
- 화전놀이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함. ㉠ d

-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c, d

10. (가)의 ㉠과 (나)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② ㉠과 ㉡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는, ㉡은 화자에게 원망을 받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 소재이다.
- ⑤ ㉠은 과거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고, ㉡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11. (나)의 [B]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 :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영결종친 이별’에 대한 화자의 피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C] : 대구를 활용하여 부채하는 ‘서방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C] :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우리 낭군’과 ‘꿈속에서라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D] :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전놀음’에 함께 참여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D] : ‘천하 만물’과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외로운 신세를 토로하고 있다.

12.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부인들이 ‘내칙 편을 외’고 ‘칠월 편을 노래하’는 풍월 놀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화전놀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청춘과녀’가 ‘한 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여성들의 한스러운 심정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텐둥어미’가 ‘이내 말을 들어 보소’라는 말을 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텐둥어미’가 ‘신명 도망 못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이야기에 나오는 경험에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화전놀음이 좋다’며 ‘심회를 조금 풀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당대 부녀자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13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정수정은 남북을 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 장연과 함께 제후가 된다. 정수정이 자신을 부마로 삼으려는 황제에게 여인임을 밝히고, 황제는 정수정과 공주를 장연과 혼인시킨다. 한편 정수정은 장연의 첩이 방자하게 굴자 참수한다.

궁중 상하 크게 놀라 태부인께 고한대 태부인이 대경실색하여 즉시 장 후를 불러 대책(大責) 왓

“네 버슬이 공후에 있어 한 여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찌 세상에 행신하리오? 며느리가 되어 나의 신임하는 시비를 매로써 벌하는 것도 불가하거든 하물며 참수지경에 이르니 이는 남이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거늘 장 후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물러나서 이에 정후의 신임하는 시녀를 잡아내어 무수 곤책하고 죽이고자 하거늘 공주와 원 부인이 힘써 간하여 그치니라. 이후로부터 장 후가 정 후를 마뜩잖게 여겨 조석정성(朝夕定省)에 만나매 외대(外待)함이 많은지라. 정 후가 마음에 극히 불쾌하면서도 장후의 냉대함은 거리까지 않았다. 일일은 중당에서 장 후를 대하여 왓

“군후가 일개 회첩으로 말미암아 첩을 깊이 한하시나 군자의 제가(齊家)하시는 근본이 아닌가 하나이다.”

장 후가 대로 왓

“그대 한낱 공후의 위를 믿고 여자의 경부(敬夫)하는 도리 없어 감히 가부의 회첩을 처살하여 교만 방자함이 이를 데가 없으니 가히 온순한 부덕(婦德)인가?”

정 후가 분해하여 함루(含淚) 왓

“내 일찍 이 같음이 본대 부모 유교(遺敎)를 저버리지 못함 이요, 다시 황은을 받들므로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부 되었으나 어찌 녹록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하리오?”

하고 즉시 외당에 나와 진시회를 불러 분부하되

“내 이제 청주로 가려 하나니 군마를 대령하라.”

하고 이에 정당에 들어가 태부인께 하직을 고한대 태부인 발연 왓

“어찌 연고 없이 가려 하나뇨?”

정 후 왓

“봉음이 중대하옵고 군무 긴급하옵기 돌아가려 하나이다.”

하고 공주와 원 부인을 이별하고 외당에 나와 위의(威儀)를 재촉하여 ㉠ 청주에 돌아와 좌정 후 진령하여 삼군을 호상하고 무예를 연습하며 성지(城地)를 굳게 하여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방지하라 하다.

차설. 이전에 철통골이 겨우 일명(一命)을 보전하여 호왕을 보고 패한 연유를 고한대 호왕이 대성통곡 왓

㉡ “허다 장졸을 죽여시니 어찌 원수를 갚지 아니하리오?”

하고 문무를 모아 대장을 의논할새 문득 한 장수가 왓

“마웅은 신의 형이라. 원컨대 병사를 주시면 당당히 형의 원수를 갚고 태종의 머리를 베어 대왕 휘하에 드리리다.”

하거늘 모두 보니 이는 거기장군 마원이라. ㉢ 범의 머리에 잔나비의 팔이며 곰의 등에 이리 허리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는지라. 호왕이 대회하여 마원으로 대원수를 삼고 철통골로 선봉장을 삼아 정병 오만을 징발하여 출사할새 수삭지내(數朔之內)에 하북 삼십여 성을 항복받고 이미 양성에 다다랐는지라. 양성 태수 범규홍이 대경하여 바삐 상표 고변한대상이 대경하사 문무를 모아 의논할새 제신(諸臣)이 다 정수정 아니면 대적할 자 없나이다 하거늘 상 왓

“전일에는 정수정이 남장한 줄 모르고 전장에 보냈거니와 이미 여자인 줄 알인데 어찌 만 리 전진에 보내리오?”

제신 왈

“차인이 비록 여자이나 하늘이 각별 폐하를 위하여 내신 사람이오니 폐하는 염려 마소서.”

하거늘 상이 마지못하여 사관(仕官)을 청주에 보내어 정 후를 명초(命招)하신대 정 후가 대경하여 즉시 사관을 따라 황성에 이르러 입궐 숙사하니 상이 반기시며 왈

㉠ “이제 국운이 불행하여 북적(北狄)이 다시 일어나 여차여차 하였다 하니 가장 위급한지라. 만조가 경을 천거하나 짐이 차마 경을 전장에 보내지 못하여 의논함이니 경의 소견이 어떠하뇨?”

정 후가 왈

“신첩이 규중에 침몰하오나 성은을 감축하옵는 바라. 차시를 당하여 어찌 안전히 앉아 있으리잇고? 신첩의 몸이 바스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북적을 소멸하여 천운을 만분지일이나 갚사울까 바라나이다.”

(중략)

원수가 소와 양을 잡아 삼군을 위로할새 원수가 또한 술이 연하여 나와 취흥이 도도하매 문득 생각하고 좌우를 호령하여 중군 장연을 나입하라 하니, ㉡ 무사 쇠사슬로 장연의 목을 얹아 장하에 이르매 장 후 꿇지 아니하거늘 원수가 대로 왈

“이제 도적이 지경을 침노함에 황상이 근심하사 나로 도적을 막으라 하시니 내 황명을 받자와 주야로 근심하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막중 군량을 때에 맞추어 대령치 아니하였는뇨? 장령을 어긴 죄를 면치 못하였는지라. 군법은 사사 없으니 그대는 나를 원(怨)치 말라.”

하고 무사를 명하여 내어 베라 한대 장 후가 대로 왈

“내 비록 용렬하나 그대의 가부이거늘 소소 혐의로써 군법을 빙자하고 가부를 곤욕하니 어찌 여자의 도리리오?”

하거늘 원수가 차언(此言)을 듣고 항복을 받고자 하는 뜻이 더욱 강해져 짐짓 꾸짖어 왈

“그대 일의 형세를 모르는도다. 국가 중임을 맡음에 그대는 내 수하에 있는데 그대 이미 범법하였은즉 어찌 부부지의를 생각하여 군법을 착란케 하리오. ㉢ 그대 나를 초개(草芥)같이 여기는데 내 또한 그대 같은 장부는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무사를 재촉하는지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1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연은 정수정이 신임하던 시비를 죽이고자 하였다.
- ② 정수정은 부모의 뜻과 황제의 명에 따라 장연과 결혼했다.
- ③ 황제는 정수정을 남자로 알고 전장에 내보낸 적이 있었다.
- ④ 정수정은 전쟁 중에 장연에게 군량을 가져오는 임무를 맡겼다.
- ⑤ 정수정은 장연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낙심하였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정수정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비유적 서술을 통해 마왕이 용맹한 인물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황제는 사태의 위급성을 언급하며 정수정에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중을 물어보고 있다.
- ④ ㉠: 장연은 장수로서의 능력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수정에게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정수정은 장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조선 후기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균열이 생겨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며 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장연을 만류하는 공주와 원 부인의 행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장연을 질책하는 태부인의 말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제신들이 황제에게 정수정을 천거하는 것에서, 공적 역할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군.
- ④ 장연이 정수정에게 경부하는 도리가 없음을 책망하는 것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정수정이 독특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서,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겠군.

빠른정답.

2	5	4	4	1
4	2	1	1	3
4	4	5	4	1

[1~4] (현대시) (가) 유치환, ‘생명의 서(書)’ / (나) 김광규, ‘4월의 가로수’ / (다) 오봉옥, ‘꽃’

-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열렬한 고독을 통해 본질을 깨닫고자 하는 삶의 자세와 그것을 추구하는 강한 의지가, (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자세를 통해 이제는 더욱 알찬 꽃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다. ③ (나)와 (다)가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는 개인의 성찰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④ (가)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드러내는 구절을 찾을 수 없다. 넓게 보아 (나)와 (다)는 자연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으면서 잎이 돌아나는 나무의 생명력과 꽃이 지는 자연의 질서를 드러내고 있다.
-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생명력이 고갈되어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이러한 ㉠이 본원적인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취한 방법이 ‘열렬한 고독’이다. 한편, ㉡은 현재 머리와 팔, 다리가 잘린 토르소처럼 몸통만 남은 가로수로서 숨막히게 답답함을 느끼다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잎이 돋게 된다. ‘늘어진 가지’는 ㉡으로 남기 이전의 상태이므로 이것을 거쳐 ㉢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 [출제의도] 작품 간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4월의 가로수를 몸통만 남아 몸부림치며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는 어떤 존재로 투영하면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등을 사용하고 있다. (다)는 3연에서 촉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② 두 작품 모두 영탄적 표현은 없다. ③ 의인화된 대상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출제의도]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과거의 삶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자신의 삶과 태도를 돌이켜보며 성찰하고 있다. ‘아프다’라는 정서는 치열한 성찰의 고통과 그 참담한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성찰의 결과 영원할 줄 알았던 꽃들이 지금은

모두 떨어졌으며 자신의 삶에서 현재 성취한 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너무 쉽게 꽃을 피웠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쉽게 지는 꽃이 아닌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꽃을 피우기 위해 ‘생기가 / 무섭게 흔들어도’ 참고 응축시켜 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즉 ‘내 몸의 수만 개 이파리들은’은 과거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과 관련된다.

[5~8] (현대소설) 박태원, ‘천변풍경’

-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소년의 눈을 통해 천변 주변의 상황과 인물들의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현재에 대한 서술이 중심이 되고 있고 과거 사건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서술자는 인물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인물 간의 갈등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인물의 이동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사건 전개에 속도를 바꾸지는 않는다. ⑤ 주변을 관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작중 상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둘째 대장 거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소년과 손님은 둘째 대장 거지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으므로 연민의 감정은 추론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소년은 이발소에서 천변 주변의 인물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재미있어 하고 있으므로 주변 인물들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② 중년 신사가 자신의 시곗줄이 심팔금인 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③ 이발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장면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⑤ 중년 신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은근한 기쁨을 갖는다는 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 [출제의도]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년은 자신이 주변 인물들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소년의 예상이 적중하는 것에 놀라는 모습이다. ③ 둘째 대장 거지가 술값을 내기 위해 매번 동전을 십전짜리로 바꾸는 행동에서 파악할 수 있다. ④ 김 서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년에게 잔소리를 그만하라고 한 데에서 파악할 수 있다. ⑤ 장구대거리 처남의 행위를 관찰한 모습에서 장구 대거리 처남에 대한 안타까움을 파악할 수 있다.
- [출제의도] 문체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부분은 긴 문장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사의 모습을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다. 또 빈번하게 쉽표를 사용하였는데, 쉽표를 사용하면 해당 부분을 독자들이 끊어 읽게 되므로 자연스레 쉽표가 사용된 부분에 주목하게

만든다. 배경에 대한 묘사는 잘 드러나지 않고, 문장의 종결 방식은 평서문의 종결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양한 종결방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ㄱ’과 ‘ㄷ’이므로 이 둘이 묶인 것을 찾아야 한다.

9. [출제의도] (고전시가) (가) 함복희, ‘**‘텐둥어미 화전가’의 서술 특성과 주제적 의미**’ / (나) 작자 미상, ‘**‘텐둥어미 화전가’ (가) 함복희, ‘‘텐둥어미 화전가’의 서술 특성과 주제적 의미**’

9. [출제의도] 작품의 구성상 특징을 파악한다.

[A]는 화전가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대목으로, 화전가 구성의 앞부분에 해당한다. [A]의 ‘방춘삼월 ~ 춤을 춘다’는 (가)에 제시된 ‘봄의 찬미’와 관련되며 봄을 맞이하여 떠오르는 흥취를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갑자을축 ~ 합당하다’를 보면 여러 날 중에서 화전놀이를 행할 날을 택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 경비를 어떻게 거두기로 했는지 논의한 내용은 [A]에서 확인할 수 없다. ㉣ [A]는 화전놀이가 행해지기 이전의 내용이므로 화전놀이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10. [출제의도] 문맥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A]의 화자는 ㉠의 ‘피꼬리’를 보고 ‘벗을 찾아 날아’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피꼬리’는 화자에게 봄을 맞아 느끼는 즐거움과 흥취를 주는 소재이다. (나)의 ‘청춘과녀’는 꿈속에서 입을 보고자 하나 ㉡의 ‘피꼬리’ 소리로 인하여 입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저놈의 새’, ‘나와 백 년 원수’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 ‘피꼬리’는 화자에게 원망을 받는 소재이다.

1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의미를 파악한다.

[D]의 ‘청춘과녀’는 ‘화전놀음’에 참여하여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심일세’, ‘어찌할꼬’ 등과 같은 영탄적인 표현으로 남편과 사별한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D]에서 ‘청춘과녀’가 ‘화전놀음’에 함께 참여한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 [B]에서 화자는 ‘답답하다’를 통해 입과 사별한 외로움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C]에서 화자는 ‘그 얼굴이 눈에 삼삼 그 말소리 귀에 쟁쟁’이라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재하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C]에서 화자는 ‘꿈’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꿈에서나마 남편과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D]에서 화자는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를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외제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나)의 ‘텐둥어미’가 ‘청춘과녀’에게 ‘신명 도망 못할지라’라고 말한 것은 ‘신이 내린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상부와 개가를 반복한 텐둥어미 자신

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견해로, 팔자나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경험에서 텐둥어미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 (나)에서 ‘내적 편을 외’고 ‘칠월 편을 노래하’는 것은 (가)에 제시된 풍월 놀이에 해당하므로 화전놀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에서 ‘청춘과녀’가 ‘한 부인’과의 대화에서 남편과 사별 후에 괴로움을 겪는 자신의 신세를 드러내는 것은 (가)에서 언급한 외부 이야기에 해당한다. ㉢ (나)에서 ‘텐둥어미’의 ‘이내 말을 들어 보소’ 뒤에 ‘나도 본다~’부터는 텐둥어미의 일생담이 전개된다. 따라서 (가)를 참고할 때 이 말을 표지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에서 ‘화전놀음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심회를 조금 풀까’하여 화전놀이에 참석했다는 ‘청춘과녀’의 말은 (가)에서 언급한 부녀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 15] (고전소설) 작자 미상, ‘정수정전’

1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장연은 자신의 첩을 죽인 일로 정수정을 조석정성에 만나도 외대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수정은 불쾌해 하기는 하지만 거리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연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낙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정수정은 자신을 초개같이 대하는 남편 장연을 혼내주기 위해 군령을 빙자하여 벌하고 있다. 따라서 ㉢에 나타난 장연의 태도는 남편을 부당하게 대하는 정수정에 대한 저항을 드러낸 것으로, 정수정에게 장수의 능력을 각인시키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 삼군을 호상하고 무예를 연습하며 성지를 굳게 하여 불의지변을 방지하라 한 일들은 정수정이 청주에 돌아와 한 공적 업무들이다. ㉡ 마원의 외양을 범과 잔나비, 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용맹함을 부각하고 있다. ㉢ 황제가 ‘이제 국운이 불행하여 복적이 다시 일어나 여차여차 하였다 하니 가장 위급한지라’라고 사태의 위급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만조가 경을 천거하나 짐이 차마 경을 전장에 보내지 못하여 의논함이니 경의 소견이 어떠하뇨?’라며 정수정에게 참전의 의향을 묻고 있다. ㉣ 정수정이 장연이 자신을 초개같이 여기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그대 같은 장부는 원치 아니’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15. [출제의도] 외제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공주와 원 부인은 장연이 정수정의 시비를 죽이려 하자 이를 말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가부장제의 균열과 관련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태부인은 정수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장연을 책망한다. 이를 통해 태부인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중시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북적으로 인해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체신들은 전쟁에 나가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은 정수정밖에 없다며 그녀를 천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수정이 공적 역할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수정이 가정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인의 경부하는 도리가 없다고 책망한다. 이를 통해 장연은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정수정의 행동을 억누르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수정이 평범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